

하나님의 일에 열매 맺어요

기도

찬 송 다와서 찬양해 (122쪽)

말 씬 에베소서 2:10, 디도서 2:14

엡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중물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1차적 목적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19세기 영국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은 윌리엄 문이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그는 좋은 머리로 공부도 잘했지만 남을 속이는 못된 짓도 많이 했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지요. 그렇게 교만했던 그가 어느 날 뜻밖의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고 심한 좌절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시력을 잃기 전 무심코 지나쳤던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이지요.

그 때부터 윌리엄은 시각장애인도 읽을 수 있는 점자를 연구해서 개발해냈어요. 시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문 타이프라이터도 만들어냈지요. 특별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성경을 최초로 편찬했습니다. 이 점자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 471개 언어에 보급되었고, 5개 대륙에 빠르게 보급되었답니다. 그만큼 필요가 절실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한 사람을 들어 쓰신 것이지요. 만약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데 그쳤다면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을 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엡 2:10)

②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딤후 2:14)

③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① 사람들의 영혼을 하는 일

②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하는 일

③ 사회에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를 섬기는 일

④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은 누가, 언제 준비하셨나요? (엡 2:10)

함께하는 기도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기도문

(정답 118쪽)